

제 15장 조선후기 지도의 제작과 특성

<조선후기 지도 자료 ; 2013.12. 5>

A)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가 儒臣과 編次人을 불러 《心鑑》을 읽게 하였다. 수찬 洪良漢이 三國基址圖를 들었는데, 각기 方位色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 임금이 보고서 말하기를, “삼국의 地形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하였다. 홍양한이 말하기를, “鄭恒齡의 집에 東國大地圖가 있는데, 신이 빌려다 본즉 산천과 도로가 섬세하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百里尺으로 재어 보니 틀림없이 착착 맞았습니다.”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해 가져오게 하여 손수 펴 보고 칭찬하기를, “내 70의 나이에 백리척은 처음 보았다.”하고, 홍문관에 1本을 摸寫해 들이라고 명하였다(『영조실록』 권90, 33년(1757/乾隆 22년) 8월 6일 을축).

B) 산천과 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십리쯤으로 가까운 곳이 어떤 때는 수백리나 되고, 수백리나 먼 곳이 때로는 십리쯤으로 가깝게 되어 있다. … 도리의 거리를 재서 자연에 따라 백리를 1척으로 하고, 십리가 1촌이 되게 했다(『東國大地圖』 <함경북도>).

C) 정상기가 정밀하게 헤아리고 노력을 소비하였으며, 백리척을 만들어 비교하고 헤아려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모두 8편(『성호사설』 권47, 농포자정공묘지명).

D) 만력 계묘년(1603)에 내가 부제학의 자리에 있을 때, 중국 수도에 갔다가 돌아온 이괄정과 권희가 <구라과국여지도> 1건 6폭을 본관에 보내왔다. 아마 경사에서 구득한 지도일 것이다. 그 지도를 보니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특히 서역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중국의 지방과 우리나라의 팔도, 일본의 60주의 지리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곳, 크고 작은 곳을 모두 기재해 빠뜨린 데가 없었다. 이른바 구라과국은 서역에서 가장 동떨어진 먼 곳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중국에서 8만 리가 되었다. 구라과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통하지 않다가, 명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두 번 입공했다. 구라과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에 이르고, 북은 빙해에 이르며, 동쪽은 대내하에 이르고, 서쪽은 대서양에 이른다. 지중해라는 바다는 그것이 바로 천지의 한 가운데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붙인 것이라고 한다. …,

영결리국(永結利國; 영국)은 육지에서 서쪽 끝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다. 낮이 굉장히 길고 밤은 짧아서 겨우 2경이면 날이 밝는다(『지봉유설』 권2, 地理部와 諸國部).

우리나라 농서의 편찬과 농업기술 1(2013.12.5)

1. 고려시대

1) 『孫氏蠶經』

정미년에(인종 5, 1127) 봄에 경산부 통관이 되니, 행정능력으로 널리 이름이 드러나고 치적 평가에서도 일등을 받았다. 임기가 차자 경령전판관 잡직서령 도병마녹사 대부주부 대부승이 더해졌다. 이 때 『손씨잠경』이¹⁾ 처음 세상에 간행되었는데, 읽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명확하지 못하였다. 공이 방언으로 풀이하어 아뢰니 조정에서 받아들이고, 조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에 널리 반포하자 양잠기술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고려묘지명집성』, 임경화묘지명)

2)吉凶逐月橫看 高麗木板²⁾

貞祐七年(고종 6, 1219) 六月 浮石寺 願堂主 重太師 知○

3) 『農桑輯要』

奉善大夫知陝州事姜著 走書於予曰 農桑輯要 杏村李侍中 授之外甥判使禹確 著又從禹得之 (《元朝正本農桑輯要》 農桑輯要後序)

→知陝州事 姜著에 의해 洪武 壬子(공민왕 21년; 1372)에 간행³⁾

2. 조선전기

1) 『農書輯要』와 『養蠶經驗撮要』

A)恭惟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撮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鄉言 刊板頒行 民力體 (《農事直說》 序)

B)永樂13年(1415, 태종 15) 5月 日 右代言臣 韓相德敬奉王旨 飭譯蠶書 刊行頒布 都觀察黜 使臣安騰 承命募工鉸梓 是月告訖業 頒諸郡 (《養蠶經驗撮要》 刊記⁴⁾)

C)下教曰 - - 太宗繼述 益勤播獲之功 特慮愚民昧於樹藝之宜 命儒臣 以方言譯農書 廣布中外 以傳于後 寡予承緒 (《世宗實錄》 卷105, 世宗 26年 閏 7月 壬寅條)

2) 『農事직설』

- 『農事직설』의 구성은 九穀을 중심한 작물만을 대상.
- 『農事직설』의 목차는 ① 備穀種, ② 耕地, ③ 種麻, ④ 種稻-附旱稻, ⑤ 種黍粟(기장과 조)-附占勿谷粟(저무이리조)·靑梁粟(생동차조)·蜀黍(수수), ⑥ 種稷(피)-附姜稷(강피), ⑦ 種大豆(콩)小豆(팥)菘豆(녹두), ⑧ 種大小麥(보리와 밀)-附春麩(봄보리), ⑨ 種胡麻(참깨)-附油麻(들깨), ⑩ 種蕎麥(메밀) 등으로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에 비하면 아주 간략한 농서. 이러한 농사직설의 구성은 『農상집요』의 種穀(粟)-種麥-種稻-種豆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
- 『農事직설』의 전체 내용 중에서 중도(수전)조가 1/3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

<가>

a)早稻 … 耕之冬月入糞-正月解水耕之 入糞或入新土亦得-(《農事直說》種稻)

b)晚稻 水耕正月解水耕之 入糞入土與早稻法同-今年入土 則明年糞 或入雜草 瓦爲之-其地或泥濘 或虛浮 或水冷 則專入新土 或沙土 土瘠薄則布牛馬糞 及連枝杼葉(鄉名加乙草)-人糞蠶沙亦佳(《農事

1) 손광현(?~968),『잠서』.
 2) 심원사 本海 스님 소장.
 3)<<元朝正本農桑輯要>> 俛長壽,書農桑輯要後
 4)李光麟,<앞의 논문>,p.40에서 재인용.

直說》種稻)

c)種稻甚多 大抵皆同. 別有一種曰旱稻(鄉名山稻) … 若瘠薄 和熟糞 或尿灰種之(《農事直說》種稻)
· 《農事直說》의 시비문제

<나>

正月解氷擇良田 田多則歲易-歲易則皮薄節闊-耕之縱三橫三布牛馬糞 二月上旬更耕之. … 曳撈覆種-
撈鄉名曳介 編多枝木爲之松枝爲上-其上又布牛馬糞(《農事直說》種麻)

3)《금양잡록》

『금양잡록』은 《농사직설》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만을 언급. 즉 이는 농사직설의 한계를 보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하나는 농업기술상의 한계를 보완. 농사직설에서는 작물의 재배법을 소상히 소개하고 기술하고 있었지만, 어떤 토성에 어떤 품종이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도의 종류는 早稻 3·次早稻 4·晚稻 18·山稻 2로 도합 27종, 豆類는 太 8· 소두 7· 녹두 2· 동배 1 광장두 1· 완두 1로 도합 20종, 서속류 19종, 피(稷) 5종, 唐黍 3종, 맥류 6종 등 총 80종. 도

<다>

稻 ; 救荒狄所里(구황되소리 일명 氷折稻 어름짓기)

無芒 色黃皮薄 其性太早 耳甚聰 米白而軟 宜膏腴不渴之田 須於三月上旬解氷初種之(까락이 없고 빛갈이 누르며 껍질이 얇다. 아주 이른 벼로서 귀가 몹시 여리고 쌀은 희고 연하다. 기름지고 물이 마르지 않는 논에 잘되며 3월 상순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씨를 뿌린다).

黃金子

芒長 初發穗時色白 熟則深黃 與所老大同 子長大 稍早 米白 作飯則軟 耳鈍 性畏豐 忌高瘠 宜膏濕地 慶尙道好種之

→다른 하나는 농정상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농업생산의 주체를 소농층으로 보고, 농업생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농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農者의 범위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시키고 있었으며, 표준 농민을 농지 100畝와 많은 식구, 즉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 보고 있음. 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가 근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농민 보호를 위한 농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3) 『사시찬요초』⁵⁾

· 『사시찬요초』의 수전농업기술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채록.

(가)

A)-修堤堰(2월 驚蟄)

B)-耕早稻(2월 春分)

C)-耕晚稻(3월 清明)

D)-漬種 冬月埋水器於溫處 貯雪厚盖 要令不凍 至春漬穀 種耕之則 禾稼耐寒而肥 所收必倍 於牛尿煮유蛹汁亦妙(3월 清明)

E)-春早乾耕 以耨木打破土塊 摩平熟治 稻種一斗和熟糞尿灰一石足種 駟鳥 立苗草茂則 雖早苗枯不可停鋤 古語曰苗知人功 鋤頭自有百本禾(3월 清明)

F)-水田入草耕種垂穗(4월 立夏)

G)-鋤早稻(4월 立夏)

H)-處暑穫早稻(7월 處暑)

3. 조선후기

1) 17세기의 농서편찬과 농학

· 사적

→ 『농가월령』⁶⁾ ; 경상도(상주·문경) 지방을 중심으로 고찰

→ 『한정록(치농편)』⁷⁾ ; 중국 화남·강남지방 明代의 농서인 『도주공치부기서』를 기초로 편찬

· 국가

→ 『농가집성』⁸⁾

『농가집성』(농사직설) 종대소맥, ‘先於五六月間 耕之曝陽 用木斫摩平 下種時又耕之 下種訖 以鐵齒擺或木斫背[熟治 密作小畝 畝間 和糞灰撒種 布熟糞] 覆種宜厚.

· 농학 ; 수전과 한전농업에서 농업생산을 보다 집약화 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을 목표로 삼음.

→수전 ; 이양법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보임.

A) 『농가월령』 잡령, 大概 稻田宜耘四次 秧田及根耕田二次 黍粟亦然

B) 『한정록』에서는 전적으로 이양법만을 강조함.

→한전 ; 조방적인 농법을 지양하고 집약적 농법을 실시함.

A) 『농가월령』에서는 맥근전의 1년 1작이 극복되고, 맥은 근경이나 간중법의 방식으로 재배되도록 함(1년 2작). 『농가월령』 5월, 根耕先耕大小豆 次黍粟 次菘豆

· 농업경영 ; 농업생산을 분명하게 상업적 농업을 행할 것을 구상함.

5) 당말 韓鄂에 의해 편찬된『사시찬요』를 抄한 것.

6) 고상안(명종 8년, 1553~인조 원년, 1623), 광해군 11년(1619)에 편찬, 광해군 즉위년 문경에 은거함.

7) 허균(선조 2년, 1569~광해군 10, 1619), 광해군 2년(1610)에서 동 10년(1618) 사이에 편찬.

8) 申澗에 의해 효종 6(1655)에 편찬.

『농가월령』 11월조, ‘大雪 調人馬 貿魚鹽[存本取利 以繼冬膳]

2) 18·19세기의 농서편찬과 농학

· 농서의 간행 보급(18·19세기).

→ 『산림경제(홍만선)』 · 『증보산림경제(유중임 ; 영조42,1766)』 · 『과농소초(박지원 ; 영조42,1766)』 · 『해동농서(서호수)』 · 『천일록(우하영)』 · 『임원경제지(서유규)』 · 『농정요지(이지연 ; 헌종 4,1838)』 · 『농정회요(최한기)』 등.

· 조선후기는 농업기술의 급격한 발전.

→ 수전 ; 이앙법의 확대 보급, 수전이모작이 가능. 건양법이 보급.

→ 한전 ; 근경법과 간중법이 더욱 확대 보급되어 2년 3작, 2년 4작이 보편화되어 감.

→ 시비법의 발달 ; 분전법, 기비와 함께 추비가 실시됨.

→ 작무법의 변화와 려경법의 발달(춘경과 추경).

→ 농업적농업이 크게 발달 ; 주곡 작물 외에 상품 작물의 재배가 늘어남, 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밭을 논으로 바꾸는 反畝현상이 나타남.

→ 수리시설의 증가(경상도의 제언수, 15세 후반=721, 16세기 초=800여개, 17세기 후반=1522개, 19세기 초=1765개, 1895년=1748개)